

한라포커스 흔들리는 '학교 안전'... 대책은?(상)

# 학교 출입 관리 기준 있지만... 현장은 '불안'

### 교직원·학생 외에 출입증 받아야 교내 출입 허용 출입구 다수인 도내 학교에선 외부인 관리 어려워 야간·공휴일 가이드라인 없어... 교육부 "보완 중"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서 잇따라 발생한 외부인 침입 사건은 교육 활동이 이뤄지는 학교 공간의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전반적인 안전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개방형 학교 구조를 개선하고 출입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지역 사회와 함께 해법을 찾는 일도 중요해졌다.

해당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침입 사건은 학교가 문을 닫은 저녁·야간 시간대에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고등학생 A군은 안전 관리가 미흡했던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와, 두 번 모두 같은 학급 교사의 물품에 재해를 남기거나 소변을 보

는 범행을 저질렀다. '교육활동 외' 시간에 발생한 범죄 행위이지만, 학생이 교육을 받는 공간의 특수성을 감안해 사안을 더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학교가 언제든 예기치 않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여겨지면서다. 학교 출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학생은 물론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학교 내 외부인 출입을 관리하기 위한 매뉴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두고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여건에 맞게 조정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하고는 출입증을 발급받아야만 교내 출입이 허용된다. 등 학교 시간 외에는 모든 출입문 폐쇄가 원칙이며, 출입문의 수도 최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 같은 규정이 무색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내 학교의 경우 개방형 구조여서 출입 통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제주는 학교 담장이 낮아 출입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고 정문 역시 기둥만 있고 문이 없는 학교가 상당수"라며 "정문, 후문, 급식실 출입로 등 학교 출입구가 5개에 해당하는 학교도 있다. 사실상 학교에 누가 드나드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정도로 안전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게다가 현재의 가이드라인에는 학교가 문을 닫은 시간에 대한 출입 관리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 정규 수업과 방과후 등을 제외한 시간대에는 학교별 자체 기준을 두

고 관리해야 하는 셈이다. 교육부 역시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현재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연말쯤 학교 현장에 전달될 가이드라인에는 야간과 공휴일 등 '교육활동 외' 시간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활동 외 시간에 대해선)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이 없다 보니 학교에서도 어떻게 할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교내는 물론 운동장, 주차장 등의 사용 유형을 파악하고 정리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했다.

다만, 가이드라인의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 지역과 학교 여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예시안이다. 그런 만큼 도내 학교 현실을 반영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제주도교육청에 주어진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 "외국인 범죄 예방 홍보 확대·엄정 대응"

윤성근 신임 서부경찰서장  
18일 취임 간담회서 피력



윤성근 서부경찰서장

펜스를 도로 중앙에 설치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가 섬이라는 특성상 범죄를 저지르고 출국해 버리면 난감한 상황"이라며 "공항공청과도 협력을 이도(移島)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부경찰서에 꼭 오고 싶었는데 현실이 돼서 기쁘다. 서장의 책임감을 갖고 주민들의 생활 속 작은 부분까지도 들여다보겠다."

윤성근(55) 신임 제주서부경찰서장은 18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윤 서장은 제주시 노형동과 연등을 중심으로 자주 발생하는 외국인 관련 기초질서 위반 및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홍보 확대와 계도·단속, 환경개선 등을 예방대책으로 제시했다.

윤 서장은 "외국인 범죄 예방 및 기초질서 안내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더불어 가시적인 순찰을 늘리고 사건 발생 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흡연부스나 쓰레기통 등을 마련해 흡연 문제를 최소화하고, 무단횡단 방지

이 된다"며 "지난해 서부시 관할 지역에서 두 건의 밀입국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해양경찰과 해안경비단과 소통하며 현장 경찰로서 필요한 대응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서장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협력단체·주민들과 소통해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며 "작은 일이라도 현장을 확인해 시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경찰 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유리기자

## 오토바이 훔친 중학생들... 무면허 운전도

제주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와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밤 9시쯤 제주시 화북동에서 주차돼 있던 배달기사의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날 오토바이를 몰고 노형동으로 이동한 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시동이 걸려 있는 오토바이를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명이 탑승하기 위해 오토바이 좌석 뒤에 설치된 배달용 보관함을 파손한 사실도 확인됐다.

양유리기자

## 특정 정당 연상 '투표 독려 현수막' 30대 송치

6·3 지방선거 기간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투표 독려 현수막을 내건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제주시 연등의 한 도로에 파란색 바탕에 '일 잘하는 대통령 투표로 밀어주자'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해당 현수막은 특정 정당을 연상시켜 이를 위반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앞서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달 29일 해당 현수막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양유리기자

## 당선인 인수위 정책 공조 협의회 구성 공동 토론회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당선인과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책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고의숙 도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두 인수위는 교육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교육감 인수위 협의회'를 구성한다. 도정 인수위의 '기획조정 분과'와 교육감 인수위의 '정책기획 분과' 등 실무진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인수위 협의회는 두 당선인의 교육 관련 공약 중에 상호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조율하게 된다. 제주특별법의 교육특례 조항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26일에는 두 인수위가 공동



안개 자욱한 남조로 18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남조로 일대에 짙은 안개가 끼어 오가는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개최하는 '돌봄 정책' 토론회가 예정됐다. 위성곤 당선인은 "도청과 교육청

이 교육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서도 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겠다"고 했고, 고의

숙 당선인은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제주형 교육 가치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지은기자

**제주 최초 청각학박사학위 취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청각학)

정확한 청력검사  
전문 보청기 상담

보청기 상담은 청각학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 보청기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 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

###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멍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는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야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원료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자선심리 심의번호 2020-GN180079

**와이덱스 보청기 강동우 청각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 755.1005

원장 강동우 박사  
청각학 협력 청능사  
전문 청재

제주시청, CGV, 광양사거리